



Zoom 04



Jean Paul Soulscapes©Matthias Ley

치유의 풍경, 사색의 풍경

광활하게 펼쳐진 들판과 푸른 하늘,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통해 사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 자연이 된 독일 출신 사진가 **마티어스 라이(Matthias Ley)**가 찾은 진정한 휴식.

에디터 | 김재영 · 디자인 | 서바른





Jean Paul Soulsapes©Matthias Ley





Jean Paul Soulscapes©Matthias Ley





Jean Paul Soulscapes©Matthias Ley



“풍경사진의 아름다움은 여성의 얼굴과도 같다. 진하게 화장한 듯한 광고용 여행사진과 달리 나의 사진은 전혀 화장을 하지 않은 여성의 얼굴이다. 그런 이유로 250년 전 장파울의 소설 속 낭만적인 자연을 담고자 했다.”

Matthias Ley

광활하게 펼쳐진 녹색 대지와 푸른 하늘, 작은 오솔길과 나무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풍경은 사진가 마티어스 라이(Matthias Ley)가 담은 독일의 북부지역 분지델(Wunsiedel)의 실제 모습이다.

독일 출신의 마티어스 라이는 1991년부터 일본 도쿄에서 포토저널리스트로 활동해 왔다. 그러던 중 2011년 3월 그가 겪었던 일은 너무도 끔찍한 기억이었다. 일본 도호쿠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가 그것이다.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사고로 이어진 연속적인 재앙은 평범한 삶을 보내던 그와 그의 한국인 아내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마티어스의 고향이자 고틀레와 동시대 소설가인 장파울의 고향, 독일의 분지델로 돌아오게 된다. 일본에서의 분주한 삶과 끔찍했던 자연재해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지델의 시골길을 걸으며 서서히 회복되어 갔고 이를 사진에 담아 더욱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했다.

마티어스는 촬영하기 전, 늘 먼저 자연 속으로 들어갔다. 풀을 만지고 나무에 기대며 스스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자연을 ‘경험’한 것이다. 오로지 자연을 ‘사용’하고 있을 뿐인 현대의 세속적인 접근 방식을 버린 그는 풍경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를 온전히 프레임에 담고자 하였다. 스스로 자연이 되어 풍경의 일부가 된 그에게 ‘풍경사진’은 어떤 의미일까?

“풍경사진의 아름다움은 여성의 얼굴과도 같다. 진한 화장을 한 얼굴과도 같은 광고용의 화려한 여행사진과 달리, 내가 보여주하고자 하는 풍경의 아름다움은 화장을 하지 않은 여성의 순수한 얼굴과도 같다.”

싫증나지 않는 순수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믿는 마티어스 라이. 그는 작년 10월부터 대형카메라를 사용해서 도쿄, 서울의 도시 풍경을 담고 있다. 따뜻한 감성의 시선으로 담은 도시의 아름다움, 그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려진다.

마티어스 라이 (Matthias Ley) 독일의 분지델(Wunsiedel) 출신으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 도쿄에서 프리랜서 인터내셔널 매거진 포토저널리스트로 활동하였다. 2008년 이후, 파인아트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전향하며 2009년부터 포토프로젝트 〈Remembering Gwangju〉와 〈Jean Paul Soulscapes〉를 작업했다. 현재 한국과 독일 뮌헨을 오가며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